

# 웰다잉 교육의 문화산업 확산과 산업화 구축에 관한 연구

장경희<sup>1</sup>, 김문준<sup>2</sup>, 김설희<sup>3</sup>, 박아르마<sup>2</sup>, 안상윤<sup>4</sup>, 김광환<sup>4\*</sup>  
<sup>1</sup>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소 연구원, <sup>2</sup>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교수,  
<sup>3</sup>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sup>4</sup>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culture industry and establishment of industrialization of well-dying education

Kyung-Hee Chang<sup>1</sup>, Moon-Joon Kim<sup>2</sup>, Seol-Hee Kim<sup>3</sup>, Arma Park<sup>2</sup>,  
Sang-Yoon Ahn<sup>4</sup>, Kwang-Hwan Kim<sup>4\*</sup>

<sup>1</sup>Researcher, Welldying Convergence Laboratory, Konya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Humanity College, Konyang University,

<sup>3</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sup>4</sup>Professor, 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교육과 웰다잉 문화확산, 산업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2021년 2월 1일~2021년 2월 22일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의 웰다잉 교육경험은 4.7%이었고 교육만족도는 2.88점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 웰다잉 교육 요구도 분석 결과 청년과 중년층은 호스피스 교육 및 정보, 연명의료 관련 정보, 장례정보 순이었고, 장년층은 호스피스 교육 및 정보, 장례 정보, 죽음 관련 심리적 극복 순이었으며, 노년층은 호스피스 교육 및 관련 정보, 장례 정보, 연명의료 관련 정보 순서로 조사되었다. 웰다잉 문화 관련 산업화 인식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웰다잉 카페, 입관체험, 장지 방문과 같은 웰다잉 체험, 문화와 예술 관련 여행상품 개발 순서로 조사되었다( $p < 0.05$ ). 이와 같은 결과는 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확산 및 산업화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웰에이징, 웰다잉, 웰다잉 교육, 노인, 문화산업 확산, 고령화 사회, 죽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well-dying education, well-dying culture, and industrialization for well-aging. For this, data was collected through Gallup Korea from February 1, 2021 to February 22,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well-dying education experience was 4.7%, and education satisfaction was surveyed with 2.88 points out of 5.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eeds of well-dyi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age groups, the educational demands of youth and middle-aged were in the order of hospice education and information, life-sustaining medical information, and funeral information. In the case of the young old, it was in the order of hospice education and information, funeral 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overcoming related to death. In the case of the elderly,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hospice education and information, funeral information, and life-care related information. The perception of industrialization related to the well-dying culture was inspected in the order of the well-dying café where you can talk about life and death, the well-dying experience such as the entrance experience, and the development of travel products related to culture and art ( $p < 0.05$ ). Such results can be usefully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well-dying education programs for well aging, cultural spreading, and industrialization.

Key Words : well-aging, well-dying, well-dying education, elderly, expansion of culture industry, an aging society, death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C2A04092504)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kh@konyang.ac.kr)

Received March 30, 2021

Revised May 2, 2021

Accepted May 20, 2021

Published May 28, 2021

## 1. 서론

### 1.1 서론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 증가는 20세기 후반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18년 14%를 초과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2].

이러한 고령인구 증가의 원인인 의료기술 발달과 위생, 생활환경의 개선,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만혼화와 비혼화로 인한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노화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 증가, 노인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한 자살률의 증가가 그 결과이다[3].

고령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며 75세 이후 고령자의 증가로 '고령자의 고령화'가 나타난다. 독거 세대수의 증가도 주요 특징인데[4],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독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1년 19.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5]. 혼자 사는 노인은 경제적,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취약하다[6].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높으며 독거 노인의 자살률은 더 높다.[7, 8]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웰다잉 교육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우울감을 낮추어줄 필요성이 제기된다[9].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도 초고령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므로 이상적인 임종기 의료와 연명의료 결정, 요양, 장례와 묘지 등 존엄한 죽음을 맞이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노후의 삶은 노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전 연령대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건강하면서도 자립적인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0]. 성공적인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삶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건강, 경제, 정신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중 웰다잉 교육은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삶의 소중함을 재인식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해

주어 성공적 노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11]. 노년기는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수용하는 태도는 죽음 불안을 낮추고 죽음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삶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고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2, 13].

기존의 웰다잉 교육의 효과 연구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고 여생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인의 정신적 죽음 준비도는 성공적 노화를 통해 자아 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죽음 불안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켜준다[14, 15].

누구나 맞이하게 될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웰다잉의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 전 생애를 통해 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교육과 문화확산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웰다잉 인식과 교육, 문화확산과 산업화 요구도를 조사하여 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교육, 웰다잉 문화확산과 산업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가 대상이며 표본 추출 방법은 성·연령별 할당으로 추출되었다.

###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KYU-2020-184-01)을 받고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21년 2월 1일~2021년 2월 22일이었으며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되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로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 연령, 결혼 유무, 최종학력, 종교, 건강보험종류, 거주지역 등 9 문항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생애주기는 정부 24의 생애별 기준에 맞추어 청년층 19~34세, 중년층 35~49세, 장년층 5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 2.3 분석방법

조사자료는 PASW Statistic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하였고 일반적 특성별 웰다잉 인식과 교육, 문화 확산과 산업화 요구도는 t-test, ANOVA 분석을 하였다. 통계분석 시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9.0%, 여자 51.0%이었고, 연령은 35~49세가 32.8%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이 10.3%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58.9%,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7.1%, 직업은 사무직이 36.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월 평균 소득은 3분위와 5분위에서 각각 32.9%, 31.3%이었고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세대 유형은 2세대 가구가 주거형태로는 아파트가 각각 60%로 높게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b>Gender</b>		
Male	167	49.0
Female	174	51.0
<b>Age</b>		
19~34	87	25.5
35~49	112	32.8
50~64	107	31.4
65+	35	10.3
<b>Married</b>		
Single	125	36.7
Married	202	59.2
Etc	14	4.1
<b>Education</b>		
High school	65	19.1
University(college)	237	69.5
Graduate school	39	11.4
<b>Religion</b>		
Christian	92	27.0
Catholic	32	9.4
Buddhism	42	12.3
Etc	175	51.3
<b>Health Insurance</b>		

Local subscribers	98	28.7
Workplace subscriber	222	65.1
Medical benefit subscribers	18	5.3
Etc	3	0.9
<b>Residence</b>		
Seoul/Gyeonggi area	233	68.3
Chungcheong-do	19	5.6
Gangwon-do	7	2.1
Gyeongsang-do	57	16.7
Jeolla-do	22	6.5
Jeju-do	3	0.9
<b>Type of household residence</b>		
Living alone	50	14.7
1rd generation(Couple)	67	19.6
2rd generation (Couple and children)	204	59.8
3rd generation (Parents, Couple, children)	20	5.9
<b>Housing type</b>		
House	32	9.4
Multigenerational	66	19.4
Apartment	237	69.5
Etc	6	1.8
<b>Total</b>	<b>341</b>	<b>100.0</b>

### 3.2 웰다잉 인식과 교육 필요성

웰다잉 인식은 장년층이(2.45±0.76) 청년층((2.09±0.90) 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웰다잉 준비의 필요성은 중년층,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은 장년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웰다잉 교육 활성화 인식은 장년층이 2.02점으로 조금 높았으나 전 연령층이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정보 인식은 노년층과 장년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층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Table 2와 같다.

### 3.3 웰다잉 교육 경험

웰다잉 교육경험은 4.7%이었고, 교육경험자는 문화센터에서 43.8%가 경험하였으며 교육만족도는 2.88점, 권장은 3.19점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미경험자의 이유는 웰다잉 교육 미인지가 52.0%이었고, 현재 상관없다고 생각함이 25.8%로 높게 나타났다. 웰다잉 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은 의미 있는 생을 살기 위함 46.9%이었고 죽음에 대한 준비(유언, 상속 등)가 23.8%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층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 ). Table 3과 같다.

Table 2. Age-specific Well-dying awareness and need for education

	Age				Total	P
	19~34 (n=87) <sup>a</sup>	35~49 (n=112) <sup>b</sup>	50~64세 (n=107) <sup>c</sup>	65+ (n=35) <sup>d</sup>		
Well-dying awareness	2.09±0.90	2.21±0.80	2.45±0.76	2.37±0.73	2.27±0.81	.015 a<c
Need for well-dying reparation	3.33±0.73	3.54±0.60	3.49±0.62	3.49±0.56	3.47±0.64	.133
Need for well-dying education	3.23±0.86	3.35±0.76	3.40±0.68	3.31±0.58	3.33±0.75	.453
Awareness of activation of well-dying education	1.81±0.89	1.86±0.83	2.02±0.76	2.00±0.56	1.91±0.80	.263
Awareness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15±0.96	2.29±0.95	2.71±0.87	2.74±0.92	2.43±0.95	.000 a<c, b<d

ANOVA(Duncan), p-value<0.05

Table 3. Age-specific Well-dying education experience

		Age				Total	p
		19~34 <sup>a</sup>	35~49 <sup>b</sup>	50~64세 <sup>c</sup>	65+ <sup>d</sup>		
Education experience (n=341)	Yes	5( 5.7)	3( 2.7)	6( 5.6)	2( 5.7)	16( 4.7)	.679
	No	82(94.3)	109(97.3)	101(94.4)	33(94.3)	325(95.3)	
Education place(n=16)	Welfare center	0( 0.0)	1(33.3)	2(33.3)	1(50.0)	4(25.0)	.606
	Cultural Center	2(40.0)	1(33.3)	3(50.0)	1(50.0)	7(43.8)	
	Educational institution	3(60.0)	1(33.3)	1(16.7)	0( 0.0)	5(31.3)	
Education satisfaction(n=16)		2.80±0.45	3.33±0.58	2.71±0.49	3.00±0.00	2.88±0.49	.316
Education recommend(n=16)		3.00±0.71	3.67±0.58	3.17±0.75	3.00±0.00	3.19±0.66	.580
Not knowing		49(59.8)	48(44.0)	51(50.5)	21(63.6)	169(52.0)	.086
Reason for non-education (n=325)	Necessity non-awareness	4( 4.9)	12(11.0)	12(11.9)	3(9.1)	31( 9.5)	
	Perceived as irrelevant	19(23.2)	33(30.3)	28(27.7)	4(12.1)	84(25.8)	
	Avoidance of death awareness	10(12.2)	11(10.1)	10( 9.9)	3( 9.1)	34(10.5)	
	Etc	0( 0.0)	5( 4.6)	0( 0.0)	2( 6.1)	7( 2.2)	
	Realizing the meaning of life	40(46.0)	48(42.9)	57(53.3)	15(42.9)	160(46.9)	.260
Recognizing the purpose of well-dying education (n=341)	Reduced fear of death	13(14.9)	24(21.4)	12(11.2)	4(11.4)	53(15.5)	
	Prepare for death (testament Inheritance)	26(29.9)	27(24.1)	19(17.8)	9(25.7)	81(23.8)	
	Preparation for dignified death	7( 8.0)	11(9.8)	18(16.8)	7(20.0)	43(12.6)	
	Etc	1( 1.1)	2( 1.8)	1( 0.9)	0( 0.0)	4( 1.2)	

ANOVA(Duncan), p-value<0.05

Table 4. Age-specific Demand on the subject of well-dying education

	Age								Total	Rank	P
	19~34 (n=87) <sup>a</sup>	Rank	35~49 (n=112)	Rank	50~64세 (n=107) <sup>c</sup>	Rank	65+ (n=35) <sup>d</sup>	Rank			
Meaning of death and the value of life	2.77±2.30	<b>8</b>	2.69±2.10	<b>8</b>	2.25±1.80	<b>8</b>	2.43±2.02	<b>8</b>	2.55±2.06	<b>8</b>	0.279
Alleviate fear of death	3.34±2.16	<b>7</b>	3.12±2.13	<b>7</b>	3.24±2.00	<b>7</b>	3.03±1.74	<b>7</b>	3.21±2.05	<b>7</b>	0.825
Health knowledge related to death	4.83±1.82	<b>4</b>	4.51±1.76	<b>4</b>	4.12±1.92	<b>6</b>	3.80±1.61	<b>6</b>	4.40±1.84	<b>4</b>	0.010 b>d, a>c
knowledge of the inheritance of wills	3.84±1.93	<b>6</b>	3.93±2.04	<b>6</b>	4.60±1.66	<b>4</b>	4.57±2.08	<b>5</b>	4.18±1.93	<b>6</b>	0.011 a<c, d
Funeral information	5.03±2.04	<b>3</b>	5.30±2.00	<b>3</b>	5.79±1.78	<b>2</b>	6.00±1.93	<b>2</b>	5.46±1.96	<b>2</b>	0.014 a<c, b<d
Psychological overcoming related to the death	4.03±2.03	<b>5</b>	4.28±2.05	<b>5</b>	4.54±2.18	<b>5</b>	5.06±1.95	<b>3</b>	4.38±2.09	<b>5</b>	0.072
Life-sustaining care related information	5.72±1.83	<b>2</b>	5.55±1.82	<b>2</b>	4.96±2.20	<b>3</b>	4.74±2.12	<b>4</b>	5.33±2.00	<b>3</b>	0.009 b<d, a>c
Hospice training and information	6.43±1.78	<b>1</b>	6.63±1.64	<b>1</b>	6.49±1.80	<b>1</b>	6.37±1.94	<b>1</b>	6.50±1.75	<b>1</b>	0.822

ANOVA(Duncan), p-value<0.05

### 3.4 웰다잉 교육 주제 요구도

연령층별 웰다잉 교육 요구도 분석 결과 청년과 중년층은 호스피스 교육 및 정보, 연명의료 관련 정보, 장례정보 순서였고 장년층은 호스피스 교육 및 정보, 장례 정보, 죽음 관련 심리적 극복 순서였으며 노년층은 호스피스 교육 및 정보, 장례 정보, 연명의료 관련 정보 순서로 조사되었다. 전 연령층의 요구도를 반영했을 때 호스피스 교육 및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장례정보, 연명의료 관련 정보, 죽음 관련 건강정보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4와 같다.

### 3.5 웰다잉 문화 확산 산업화 인식

웰다잉 문화 확산 인식에서는 '더 확산되어야 한다'가 74.8%로 높게 나타났고( $p<0.05$ ), 문화 확산을 위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59.8%로 조사되었다( $p<0.05$ ).

웰다잉 문화 확산 방법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삶과 죽

음에 대한 확산이 62.5%로 높게 나타났고 웰다잉 문화관련 산업화 인식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웰다잉 카페, 입관체험 장지 방문과 같은 웰다잉 체험, 문화와 예술 관련 여행상품 개발 순서로 조사되었다( $p<0.05$ ). Table 5와 같다.

## 4. 논의

본 연구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죽음 인식과 웰다잉 지식 및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교육 및 웰다잉 문화 확산과 산업화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이 5명 중 1명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노화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의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Table 5. Age-specific Awareness of the spread of well-dying culture and industrialization

	Age				Total	p
	19~34 (n=87) <sup>a</sup>	35~49 (n=112) <sup>b</sup>	50~64세 (n=107) <sup>c</sup>	65+ (n=35) <sup>d</sup>		
More spread	57(65.5)	81(72.3)	89(83.2)	28(80.0)	255(74.8)	.008
Recognition of the need to spread well-dying culture	10(11.5)	11(9.8)	9(8.4)	2(5.7)	32(9.4)	
Not needed	5(5.7)	8(7.1)	5(4.7)	0(0.0)	18(5.3)	
Not knowing	15(17.2)	12(10.7)	4(3.7)	5(14.3)	36(10.6)	
Education about life and death	51(58.6)	64(57.1)	69(64.5)	20(57.1)	204(59.8)	.111
Life retrospective, autobiography writing	8(9.2)	9(8.0)	5(4.7)	0(0.0)	22(6.5)	
Well-dying awareness improvement plan	18(20.7)	31(27.7)	30(28.0)	15(42.9)	94(27.6)	
Enactment of laws, ordinances related to well-dying	8(9.2)	6(5.4)	3(2.8)	0(0.0)	17(5.0)	
Etc	2(2.3)	2(1.8)	0(0.0)	0(0.0)	4(1.2)	
Well-dying related contest	21(24.1)	10(8.9)	5(4.7)	2(5.7)	38(11.1)	.009
Mass media	43(49.4)	70(62.5)	74(69.2)	26(74.3)	213(62.5)	
Ways to spread well-dying culture	13(14.9)	13(11.6)	11(10.3)	3(8.6)	40(11.7)	
Theater, movie	7(8.0)	16(14.3)	15(14.0)	3(8.6)	41(12.0)	
Debating society	3(3.4)	3(2.7)	2(1.9)	1(2.9)	9(2.6)	
Etc	17(19.5)	8(7.1)	10(9.3)	2(5.7)	37(10.9)	.003
Exhibition	23(26.4)	28(25.0)	31(29.0)	10(28.6)	92(27.0)	
travel products(connection with literature, art)	28(32.2)	45(40.2)	23(21.5)	5(14.3)	101(29.6)	
Well-dying related industries	16(18.4)	29(25.9)	41(38.3)	17(48.6)	103(30.2)	
Well Dying Experience(Immigration experience, visit to Jangji, etc.)	3(3.4)	2(1.8)	2(1.9)	1(2.9)	8(2.3)	
Well-dying Cafe(talk about life and death)	87(25.5)	112(32.8)	107(31.4)	35(10.3)	341(100.0)	
Etc						
Total						

ANOVA(Duncan), p-value<0.05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까지 포괄하여 노화에 대한 인식을 전 생애적으로 이해해야 하며[16], 죽음에 대한 인식과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17, 18].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청년·중년·장년·노년 전 연령대에서 80.4%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중년의 '전혀 생각하지 않음' 응답 비율이 23.2%로 가장 높았고, 청년 20.7%, 장년 16.8%, 노년 14.3% 순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항상 생각한다'는 노년은 8.6%로, 청년층 3.4%, 중년 1.8%, 장년 2.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노년이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죽음을 생각하면 주로 '두렵다'(40.8%)는 마음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편안하다'(22.6%), '우울하다'(16.7%), '슬프다'(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기별로 확인한 결과,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청년 및 중장년의 경우 '편안하다'라는 마음이 주로 들었고, 노년의 경우 '우울하다'(25.7%)는 마음이 주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우울감과 죽음 불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Hyun 외 결과[11]는 노인 및 중년층에게 죽음교육 프로그램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준다[19, 20].

웰다잉 교육 내용에서 소중한 삶을 잘 살고 죽음도 잘 맞이하자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 여부는 전 연령층에서 낮게 나타나 웰다잉이 무엇인지 모르는 연구대상자가 많았으나 죽음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죽음 교육인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장년, 중년, 노년, 청년 순으로 높았다. 이는 행복지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죽음 준비와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Chang 외 연구[21]와 가족의 죽음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Kim 외 65세 이상 대상 연구[22] 결과와도 일치하며, 웰다잉 교육의 확대 실시 필요성을 보여준다.

연구대상자 중 웰다잉 교육과 관련해서 웰다잉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95.3%로 높았으며, 웰다잉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 '웰다잉 교육이 있는 줄 몰라 접하지 못해서'가 52.0%로 가장 높았고, 노년 63.6%, 청년 59.8%, 장년 50.5%, 중년 44.0% 순으로 웰다잉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웰다잉 교육을 실시한다면 웰다잉 교육을 받을 의향이 전 연령층 모

두 높았으며, 노년, 중년, 장년, 청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웰다잉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인생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이 46.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죽음 준비에 대해 실제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것'으로 23.8%였다. 세 번째는 청년이나 중년은 '죽음의 공포나 불안을 줄이는 것'이었으나, 장년·노년층은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웰다잉 프로그램을 비교한 Lee 외[23]연구에서도 웰다잉 프로그램이 연구대상자의 죽음 불안을 낮추고 죽음에 대한 인식 상승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고, 웰다잉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Lim 외[24]에서도 웰다잉 인식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웰다잉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모두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웰다잉 교육의 수요와 필요성은 확인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웰다잉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므로 웰다잉 교육의 확대 실시 필요성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웰다잉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호스피스 교육 및 정보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년층·중년층은 연명의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변화된 장묘·장례 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 죽음과 질병에 관한 의학적 지식 순으로 교육 필요성을 나타냈다. 장년층은 변화된 장묘·장례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 연명의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에 관한 법률적 지식 순이었고, 노년층은 변화된 장묘·장례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 및 친구의 죽음 시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연명의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전 연령층 모두 실제적인 호스피스 교육과 정보, 장묘 장례절차에 대한 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등 실제적인 죽음과 관련된 법률지식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가 컸으며, 배우자 사별 등 상실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노년층에서만 죽음과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등의 정보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죽음과 관련된 실제적인 법률과 관련된 정보는 전 생애적으로 꼭 필요한 웰다잉 교육 내용이어야 하며,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웰다잉 교육에는 애도 상담·비탄 교육 등 배우자 사별 등을 겪었을 때 슬픔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웰다잉 교육 대상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인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 실시 시기는 대학생 이상 성인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적당한 교육 기간은 5회로 가장 높았으며, 12회, 주 1회씩 6개월, 1회 순이었다. 적합한 웰다잉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청년은 사회복지기관, 학교, 평생교육원 순이었고, 중년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기관, 학교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년은 사회복지기관, 평생교육원, 학교 순이었고, 노년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기관, 교회 등 종교기관 순이었다. 이는 연령대별로 삶의 영역 안에서 접근성이 편리하고 자신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은 각 연령대에 맞게 다르게 구분하여 교육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웰다잉 교육 방법은 전 연령층 모두 79.8%로 강의와 적절한 활동이 융합된 교육을 선호하였고, 웰다잉 교육은 웰다잉 교육 전문가(강사)가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진, 목사나 성직자, 대학교수 및 학교 교사 순이었다. 이와 같이 웰다잉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많이 필요할 것이 예상되며 전문강사 양성이 뒤따라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정의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청년과 장년은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 응답하였고, 중년과 노년은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죽음에 대한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88.0%가 준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죽음에 대한 준비는 유언장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와 장묘 준비, 자서전 쓰기 순이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 사람들은 12.0%였는데, 장례와 장묘 준비가 가장 많았고, 유언장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자서전 쓰기 순으로 준비를 하였다.

임종기의 연명의료 여부를 묻는 사전 의사 결정 관련 법적 양식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인지도는 청년층에서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56.3%로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중년은 58.9% 장년은 69.2% 노년은 65.7%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90.3%로 전 연령층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작성한 경우는 5.0%에 불과하였다. 작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어디서 작성하는 줄 몰라서가 31.8%로 가장 높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작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9.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7.8%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동기에 대한

Chang의 연구[25]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보를 모르다가 웰다잉 교육에서 강의를 듣고 작성 필요성을 인식하여 작성하였거나, 알고 있었어도 어디에서 작성하는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 교육을 통해 작성할 수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제정되고 2018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2021년 현재 시행 3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정보제공이 미흡하며, 제도에 대한 교육과 작성방법 및 상담 등록 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죽음과 관련 내용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주위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30.5%였고, 없는 경우는 28.2%였으며 주위에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37.8%로 필요 없다는 3.5%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5.2%였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경우는 74.8%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77.7%가 웰다잉 관련 동영상이나 홍보물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74.8%가 지금보다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웰다잉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공감하고 있었다, 이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또한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주위에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죽음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방법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59.8%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편하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삶을 회고하기 위한 자서전 작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웰다잉 관련 법률 및 조례제정' 순으로 응답하였다. 웰다잉 문화 확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 교육의 효과는 선행연구의 웰다잉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의미, 자기효능감,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올바른 죽음에 대한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준다[26, 27, 28]. 그러므로 웰다잉 교육은 지속적으로 전 연령대에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 다음으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에 대해 연구대상자들은 전 연령대에서 'TV, 라디오 등 방송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는 것

을 첫 번째로 꼽았고, 중·장년·노년은 ‘웹다잉 관련 토론회가 많아져야 한다’, ‘웹다잉 연극이나 영화 등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청년은 ‘웹다잉 관련 글, 웹툰 등의 작품 공모전이 많아야 한다’, ‘웹다잉 연극이나 영화 등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 여가 생활 중 미디어 등 TV 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때[29]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대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웹다잉 문화 확산 방법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빠르고 쉽고 사료된다.

웹다잉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애주기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청년 중년은 ‘입관체험, 장지 방문 등 웹다잉 체험 상품 개발’이 가장 높게 나왔고, 장년 노년은 ‘삶과 죽음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웹다잉 카페 개설’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청년은 ‘문학·예술·역사와 연계한 여행 상품 개발’, ‘웹다잉 관련 전시회’ 순이었고, 중년은 ‘삶과 죽음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웹다잉 카페 개설’, ‘문학·예술·역사와 연계한 여행 상품 개발’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장년 노년은 순위가 동일하였는데, ‘문학·예술·역사와 연계한 여행 상품 개발’, ‘입관체험, 장지 방문 등 웹다잉 체험 상품 개발’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는 세대별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청년 중년은 활동적인 체험을 더 선호하였고, 장년 노년은 삶과 죽음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웹다잉 카페 개설을 선호하였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친지 등 죽음의 경험도 많고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죽음의 아픈 경험이나 애도 비탄 등의 이야기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 매년 5월 ‘죽음 알림 주간’에 열리는 ‘DEATH CAFE’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 양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터부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화를 공유한다. 남녀노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데스카페’에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를 통해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영국은 2015년 ‘죽음의 질’ 1위 국가가 되었다[30]. 데스카페는 이후 18개 국가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상조회사가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뜻있는 사람들이 데스카페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현재지 부족하며 상설카페는

일시적으로 모임을 갖는 정도이다. 삶과 죽음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웹다잉 카페 개설은 고령노인이 많아지는 고령시대에 꼭 필요한 문화가 될 것이다. 또한 문화적 편견이나 금기를 깨고 죽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죽음 공포나 불안을 낮춰주고 죽음의 질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개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대상 인원을 균등하게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으로 노년층 응답율이 낮고 온라인 조사의 특정 계층 편향 현상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웹다잉 교육경험, 문화, 산업화 인식을 조사한데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인구가 증가 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진 장수사회를 맞이하여 웰에이징을 위한 웹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생애주기에 따른 웹다잉 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TV, 라디오 등 방송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는 것과 다양한 웹다잉 체험상품 개발, 그리고 삶과 죽음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웹다잉 카페를 개설해야 한다는 요구를 확인하였다 [31,32].

## 5. 결론

본 연구는 19세 이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웰에이징을 위한 웹다잉 문화 확산 및 산업화를 위해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웹다잉 인식과 교육, 문화 확산 및 산업화의 요구도를 조사하여 웰에이징을 위한 웹다잉 문화 확산과 산업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웹다잉 교육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유언과 상속,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등 실제적인 죽음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정보 교육의 요구도가 높았으며, 웹다잉 문화는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문화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TV, 라디오 방송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가 가장 높았다. 산업화와 연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 중년은 입관체험·장지 방문 등 웹다잉 체험 상품 개발을 선호했고, 장년 노년은 삶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웹다잉 카페 개설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웰에이징을 위한 웹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 확산 및 산업화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 [1] S H Park. (2010). *AGING REVOLUTION Solution for Agequake*. Seoul: haseo.
- [2] KOSIS. (2019).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2017-2067*.
- [3] D. R. Kim, K. H. Kang, A. Park, C. H. Lee & K. H. Kim. (2021). An Integrative Review of Well-aging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3), 190-198. DOI : 10.5762/KAIS.2021.22.3.190
- [4] University of Tokyo Institute for Aging Society .Y. E. Choi. (2019). *Old age social studies textbook of Tokyo University*. Seoul : HaengseongB
- [5] Kindicator. (2021). *Ratio of elderly living alone*.(online)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3>
- [6] KOSIS. (2018). *Residential form of the elder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rvey on the elderly.
- [7] S. I. Shin, M. H. Hong, & S. J. Sim.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on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Behavior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826-835 DOI : 10.5762/KAIS.2020.21.12.826
- [8] J R. Lim, & J. S. Kim, (202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covery Process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Suicide Cris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8), 304-314 DOI : 10.5762/KAIS.2020.21.8.304
- [9] T. Y. Gil. (2017). The Effec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Death Anxiety and Self-integration of Elderly People in Urban and Rural Complex Areas, *Journal of Rural Society of Korea*, 27(1), 95-124 DOI : 10.31894/JRS.2017.06.27.1.95
- [10] K. E. Park, M. H. Kwon. & Y. E. Kwon. (2013). Correlation among Depression, Death Anxiety and Quality of Life of Aged Women, *Journal of Korea Public Health Nursing*, 27(3), 527-538 DOI : 10.5932/JKPHN.2013.27.3.527
- [11] M. K. Byun, H. J. Hyun, S. J. Park. & E. Y. Choi. (2017). Efficacy of Well-dying Program for Meaning of life, Self-efficiency, and Successive ag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413-422. DOI : 10.5762/KAIS.2017.18.10.413
- [12] S. U. Park & Y. S. Kang. (2021). The Effect of Cancer Patients' Knowledge of Advanced Directives and Perception of Good Death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2), 539-547 DOI : 10.5762/KAIS.2021.22.2.539
- [13] H. S. Lim & J. S. Yoo. (2020). Factors Affecting on Death Anxiety in Elderly Cancer Survivors : Focusing on Ego Integrity, Depression and Awareness of Good Death,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 197-207 DOI : 10.5762/KAIS.2020.21.1.197
- [14] Y. O. Lee, P. H. Kim, M. R. Pa. & N. J. Je. (2019). Effects of Well-dying Program on the Death Anxiety, Perception of Good Death, and Readiness for Death - Comparison of Aged an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8), 514-522 DOI: 10.5762/KAIS.2019.20.8.514
- [15] H. L. Seo, Y. K. Jun. & H. N. Kim. (2013). The Effects of Physical Disease on Elderly Depression and Moderate effects of the Self-Care Performanc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1, 57-84.
- [16] K. E. Park, M. H. Kwon. & Y. E. Kwon.(2013). Correlation among Depression, Death Anxiety and Quality of Life of Aged Women. *Journal of Korea Public Health Nursing*, 27(3), 527-538. DOI: 10.5932/JKPHN.2013.27.3.527
- [17] S. J. Won. (2020). The Role of Poverty on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5), 520-526. DOI : 10.5762/KAIS.2020.21.6.520
- [18] H. Y. kim. (2020). Factors Affecting Aging Anxiety in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6), 563-573 DOI : 10.5762/KAIS.2020.21.6.563
- [19] I. S. Kim. (2021). Necessity for Changing the Aging Perceptions as Enter the Aged Society- Focusing on the concept of Gerotranscendence in the Korean Sundo. *Kukhak Institutevol*, 30, 373-407 DOI : ART002694017
- [20] H. J. Hyun, A. K. Chang, S. J. Yu. & Y. H. Park. (2012). Comparison of Comprehensive Health Statu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Institutionalized Olde Adults and Commun Dwelling Older Adults.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1), 40-50
- [21] K. H. Chang, S. H. Lee. & G. H. Kim. (2018). A Study on the Interest in Hospice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489-498. DOI: 10.5762/KAIS.2018.19.5.489
- [22] D. R. Kim, S. H. Lee, S. Y. Ahn. Y. H. Kim, C. H. Lee. & K. H. Kim. (2019). A Study on Dying Well Education Needs of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9), 270-278. DOI: 10.5762/KAIS.2019.20.9.270
- [23] Y. O. Lee, P. H. Kim, M. R. Park. & N. J. Je. (2019). Effects of Well-dying Program on the Death Anxiety, Perception of Good Death, and Readiness for Death - Comparison of Aged an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8), 514-522.  
DOI: 15.762/KAIS.2019.20.8.514

- [24] H. N. Lim, S. H. Lee, & K. H. Kim. (2019). Correlation between the components of dying with dignity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5), 137-144  
DOI : 10.5712/KAIS. 2019.20.5.137
- [25] K. H. Chang, K. H. Kang, D. R. Kim, H. N. Kim, & K. H. Kim. (2019). A Study on the Motivation to Write Signing Advance Medical Directiv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0), 243-249.  
DOI: 10.5762/KAIS.2019.20.10.243
- [26] B. N. Kim & D. I. Kim. (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Adult Learner' Death Preparation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0(2), 23-31
- [27] B.Y. Kim, C. U. OH, & H. K. Kang. (2016).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and Pain of Adul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156-162  
DOI : 10.5762/KAIS.2016.17.9.156
- [28] H. M. Kim. & D. H. Kim. (2014). Stud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Elderly and Their Leisure Time Spending : Analyzing the Data of Hours of Living 2014. *Korean Society of Community-Based Occupational Therapy*, 9(1), 55-67
- [29] EBS <DEATH> Directed by Death's production team, EBS Document Prime Death -Life and Death Squad Planning !, Checkdam, 2014.
- [30] E. J. Oh & K. O. Chang, A. Park, C. H. Lee & K. H. Kim. (2021).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Avoidance Coping Style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in the Elderly over the Age 65 in G C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2), 92-103.  
DOI : 10.5762/KAIS.2021.22.2.92
- [31] M. K. Park & K. Y. Cho. (2021), The Effect of Transition to Living with Chronic Diseases on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2), 354-361  
DOI : 10.5762/KAIS.2021.22.2.354
- [32] S. M. Kwon, R. W. Kown, & H. R. Lee. (2020).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community dwelling frail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742-751  
DOI : 10.5762/KAIS.2020.21.12.742

장 경 희(Kyung-Hee Chang)

[장학원]



- 2017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교육융합학과 (문학석사)
- 2018년 4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예술치료학과 박사 수료
- 2021년 10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죽음교육, 웰다잉, 삶의 질,

웰에이징, 문학예술치료  
· E-Mail : 386hee@hanmail.net

김 문 준(Moon-Joon Kim)

[장학원]



- 1995년 8월 : 성균관대 철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관심분야 : 한국철학, 동양철학, 웰에이징
- E-Mail : kmj@konyang.ac.kr

김 설 희(Seol-Hee Kim)

[장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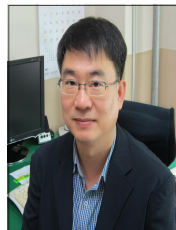


- 2009년 3월 : 조선대학교(보건학박사)
- 2010년 3월 ~ 2014년 2월 :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보건학, 교육학, 웰에이징

· E-Mail : ableksh@konyang.ac.kr

박 아르마(Arma Park)

[장학원]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불문과 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조교수
- 관심분야 : 문학비평, 번역학, 웰다잉, 웰에이징
- E-Mail : parkarma@konyang.ac.kr

안 상 윤(Sang-Yoon Ahn)

[장학원]



- 1999년 8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 박사
- 1987년 4월 ~ 2000년 12월 : 충남대학교 기획연구실
- 2002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병원조직인사관리, 의료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웰에이징

· E-Mail : greahn@konyang.ac.kr

김 광 환(Kwang-Hwan Kim)

[중산학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노인, 삶의 질, 치매, 웰에이징
- E-Mail : kkh@konyang.ac.kr